

참고 9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평파열음화

학교 문법에서는 평파열음화 대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용어가 더 일반화되어 있다. 그런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홀받침이 ‘ㄴ, ㄷ, ㄱ’ 중 하나로 바뀌는 음운 현상뿐만 아니라 겹받침 중 하나가 줄어드는 현상, 즉 일반적으로 자음군 단순화라고 불리는 현상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평파열음화나 자음군 단순화 모두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이 있지만 음운 변동의 양상이 각각 대치와 탈락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한 현상으로 묶기에는 부적절하다. 다른 하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명칭이 너무나 모호하다는 점이다. 음운 현상의 명칭을 정할 때는 대부분 입력형과 출력형을 비교하여 변화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고려하게 된다. 뒤에서 살펴볼 유음화, 비음화 등이 모두 그러하다. 그런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그 명칭만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어서 다른 음운 현상의 명칭과 차이가 난다. 이 현상이 적용되면 평파열음인 ‘ㄴ, ㄷ, ㄱ’ 중 하나로 바뀌므로 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평파열음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참고 10 연음과 평파열음화

연음은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앞선 형태소의 말음이 뒤 형태소의 초성으로 옮겨 가서 발음되는 현상이다. 한국어의 연음은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조사, 어미, 접사)가 결합할 때 일어난다. 연음의 예에는 ‘밥이[바비], 먹어[머거], 깊이[기피]’ 등이 있다. 현실 발음 중에는 연음의 원리를 어겨서 틀리는 것들이 적지 않다. 가령 ‘부엌이, 무릎이, 닭이’ 등은 표준 발음대로라면 연음을 지켜 ‘[부어키], [무르피], [달기]’라고 발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부어기], [무르비], [다기]’와 같이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연음은 평파열음화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연음이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평파열음화가 일어날 수 없고, 연음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에서는 반드시 평파열음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연음과 평파열음화의 적용 환경을 비교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연음이 적용되려면 후행하는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여야 하지만, 평파열음화가 적용되려면 후행하는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2.4.2.2. 비음화

비음화는 장애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그런데 비음화의 적용을 받는 장애음은 음절의 종성에 놓이기 때문에 비음화가 적용되기에 앞서 평파열음화의 적용을 받아서 ‘ㄴ, ㄷ, ㄱ’ 중 한 자음으로 바뀐다. 또한 비음화의 적용 환경이 되는 비음은 음절 초성에 놓이기 때문에

연구개 비음 ‘ㅇ’은 비음화를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비음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양상은 평파열음 ‘ㅂ, ㄷ, ㄱ’이 ‘ㅁ, ㄴ’ 앞에서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바뀌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현상은 선행하는 평파열음이 후행하는 비음의 조음 방식에 닮아 가는 동화 현상이다.³⁷ 비음화는 한국어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며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적용되는 매우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

³⁷ 이런 사실을 반영하여 비음화 대신 비음 동화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 (23) 가. 입는→[임는], 밥만→[밤만], 믿는→[민는],
 만며느리→[만며느리], 먹는→[멍는], 국민→[궁민]
 나. 덮는→덥는→[덤는], 옷만→온만→[온만],
 쫓는→쫘는→[쫘는], 닿는→달는→[단:는],
 닳는→닥는→[당는], 부엌만→부억만→[부엍만]
 다. 밥 먹어→[밤머거], 옷 널어→온널어→[온너러],
 떡 만들어→[땡만드러]

(23가)는 ‘ㅂ, ㄷ, ㄱ’이 직접 비음화의 적용을 받는 예이다. (23나)는 비음화가 적용되기 전에 앞서 평파열음화가 먼저 적용되는 예이다. (23나)의 경우 평파열음화가 적용되기 전에는 비음화의 입력형인 ‘ㅂ, ㄷ, 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음화가 적용되지 못한다. (23다)는 비음화가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참고 11 동화에 대하여

한 음운이 다른 음운에 닮아 가는 현상을 동화라고 한다. 음운의 대치 중에는 동화 현상이 매우 많다. 서로 다른 두 음이 인접할 경우에 발음의 편의를 위해 두 음을 비슷하게 발음하는 것은 언어 보편적으로도 널리 확인되는 경향이다. 앞에서 다룬 비음화와 같이 자음이 자음에 동화되는 것을 특별히 자음 동화라고 한다. 자음 동화는 예전에 자음 접변이라고도 불리었으며 매우 오래전부터 한국어의 대표적인 음운 현상으로 다루어져 왔다.

동화 현상에서 동화를 시키는 음을 동화주 또는 동화음이라고 하고 동화를 입는 음을 피동화주 또는 피동화음이라고 한다. 동화는 동화주와 피동화주의 관련 양상에 따라 여러 가지 하위 구분을 할 수 있다. 우선 동화주와 피동화주의 순서에

³⁸ 표준 발음법에서는 ‘ㄹ’의 비음화가 적용되는 환경을 ‘ㄱ, ㄴ, ㄷ, ㅁ, ㅂ, ㅇ’ 뒤로 더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한자음 중에 ‘ㄷ’으로 끝나는 것이 없고 ‘ㄴ’ 뒤에 있는 ‘ㄹ’은 유음화의 적용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를 나눈다. 순행 동화는 동화주가 앞에 있고 역행 동화는 동화주가 뒤에 있다. 다음으로 피동화주가 동화주와 같아지는 정도에 따라 완전 동화와 부분 동화를 구별한다. 완전 동화는 피동화주가 동화주와 동일해지는 것이고 부분 동화는 일부 특징만 닮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화주와 피동화주의 거리에 따라 직접 동화와 간접 동화를 나눈다. 동화주와 피동화주가 맞닿아 있으면 직접 동화이고 그 사이에 다른 음이 끼어 있으면 간접 동화이다.

2.4.2.3. ‘ㄹ’의 비음화

‘ㄹ’의 비음화는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고유어에서는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와 ‘ㄹ’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결합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현상은 한자어나 외래어에서만 적용된다. 또한 한자어나 외래어는 그 말음이 제한되어 있어서 경음이나 유기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ㄹ’의 비음화가 실제로 적용되는 양상은 ‘ㄱ, ㄴ, ㄷ, ㅁ, ㅂ, ㅇ’ 뒤에 오는 ‘ㄹ’이 ‘ㄴ’으로 바뀌는 모습으로 나타난다.³⁸

(24) 가. 독립→독닙→[동닙], 여섯량→여설량→여선냥→[여선냥],
음운론→[음운논], 침략→[침냐], 협력→협녁→[협녁],
공론→[공논]

나. 백룸(back-room)→백눔→[뱅눔], 인라인(in-line)→[인나인],
핫라인(hot-line)→할라인→한나인→[한나인],
홈런(home-run)→[홈넌], 업로드(up-load)→업노드→[엄노드],
롱런(long-run)→[롱넌]

‘ㄹ’의 비음화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쟁점 사항이 있다. 그중 하나는 ‘ㄹ’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다. ‘ㄹ’의 비음화는 ‘ㄹ’을 제외한 자음 중 비음 뒤에서만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 이것은 이 현상을 비음에 의한 순행 동화로 보고자 함이다. 그러나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ㄹ’의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다른 자음 뒤에서도 활발하게 적용되므로 그렇게 보기 어